

데스크 시각



임동욱 선임기자 겸 이사

다음 주(28일)면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 이번 연휴는 임시공휴일과 개천절 등을 더하면 6일이나 된다...

임계점 이른 민생 경제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치러진다. 이번 추석 명절에 형성되는 민심이 22대 총선의 판도를 가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은편칼럼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연구원장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논쟁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 영웅 흥범도 장군까지 이념 논쟁의 소재로 삼는 윤석열 정부의 민족적 정체성은 무엇일까...

기 고



정두웅 (사)청년문화허브 감독

광주에서 청년 문화정책이 가장 활발히 논의된 때는 민선 6기(2014년~2018년)였다. 청년 문화정책 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민과 관 모두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광주에서 선도적으로 이끄는 정책과 활동도 상당했다...

주목되는 추석 민심

을 도로하고 정치권에 책임을 묻는 수순으로 답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민생의 위기는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가구 실질소득 하락폭은 신기록(-3.9%)을 세웠다...

반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치솟은 건 농산물·기름 값과 가계 빚이다. 특히 가계부채 비율(105%)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섰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후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미국(74%), 일본(68%)을 앞질렀다...

이런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둔 정치권은 크게 출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을 요구하며 19일 동안 단식을 이어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결국 건강 악화로 지난 18일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정율성 공원을 ‘한·중 우호 공원’으로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두환 일당은 5·18을 북한과 연결하려 노력했지만, 지혜로운 광주 시민들이 그런 틈새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율성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오늘의 광주가 새겨야 할 교훈이다...

광주시 정책 우선 순위에 ‘청년’은 있을까

위에서 ‘청년’이 밀려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혹여 오해가 있을까 사족을 붙이지 않자 각 시장의 공과에 대한 전체적 평가가 아니라 청년 문화정책에 한정된 언급임을 밝혀둔다). ‘구호’가 아닌 예산, 조직 편성, 시장과의 대면 소통 횟수 같은 실제 ‘행동’을 봐야 행정의 실제 관심사와 정책 우선 순위가 보인다고 한다...

있고 국민의힘은 ‘민생을 내던진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의 동시 표결이라는 조유의 상황도 전개된다...

퇴행적 정치 심판하

지난 대선 이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야의 사법리스크 공방은 민생의 실종을 불러오는 블랙홀로 작용했다. 미래에 대한 성찰을 통한 협치보다는 서로를 비난하며 생존하는 적대적 공생관계의 동력이 됐다...

상, 이 주제로 광주가 정부나 보수 진영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5·18 광주항쟁 등 광주의 주요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원칙을 고수해야 하지만 정율성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율성 공원은 오래전부터 추진됐고 현재는 거의 완공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율성 기념공원 사업을 추진해온 광주시의 취지는 이제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 중국 국민에게도 일정 부분 알려졌을 것이다...

이 경우 공원 한쪽에 정율성 선생 후손들 혹은 그를 좋아하는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정율성 선생의 탄생지를 알리는 표지석 혹은 그를 소개하는 작은 조형물을 만들어보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광주가 낳은 천재 음악가를 기념하고 알리는 일은 이 정도로 수준에서도 충분하다고 본다...

社說

혁신도시 공기업 지역 은행 외면 안된다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주거래 은행으로 지역 은행을 아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 중 11개 기관의 주거래 은행이 모두 5대 시중은행이었다...

한전의 경우 1750억 원을 농협은행에 예치해 두고 있으며 나머지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도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등을 주거래 은행으로 삼아 자금을 예치해 놓고 있다...

차량 몰수에도 늘어나는 상습 음주운전자들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빼앗기고 구속돼도 핸들을 잡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음주운전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 사망사고를 낸 차량을 몰수하고 있는데도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만 37건이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021년 9738건에서 지난해 1만 27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광주·전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7412건에 달했다...

18일 여수경찰은 음주운전 6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 A(71)씨를 특정범죄 7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4월 여수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변도 1차로에서 보행자 B(76)씨와 충돌해 경상을 입힌 혐의다...

다른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공기업들이 전국 단위의 시중은행에 자금을 맡기고 유통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 런 만큼 혁신도시법에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혁신도시에 추가로 공기업을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점2’를 앞두고 주거래 은행 선정 과정에 지역 은행이 일정 비율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인 ‘탈 중앙화’ 정신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정역 2년을 선고 받고 차량을 압수당했다. 그는 지난 3월 장흥군의 한 상당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3% 상태로 4km 가량 운전을 했다. 6차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60대 C씨도 지난달 담양군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6%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화물차를 몰수 당했다...

문제는 음주운전자의 상당수가 상습범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이 42.24%에 달하는 등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40% 대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질적인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상습 음주운전 처벌 법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들도 음주운전은 곧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머칠 전 시골 처가에 홀로 사시는 장모님을 찾았다가 가슴 뜨끔 한 이야기를 들었다. 얘기는 이렇다. 장모가 ‘홀몸 노인’이라 군청에서 안부 전화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생활보호사가 직접 하던 것을 요새는 AI 로봇이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AI 목소리

여기에 인간은 공통점 보다는 차이점을 본능적으로 주목하기 때문에 이에 과민반응해 호감을 얻기 어렵고, AI 목소리가 좋게 들릴 리 없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장모가 그랬던 이유 없는 불쾌감의 원인이기도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설픈 억양과 부자연스러운 AI 목소리는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로봇이 인간을 어설프게 들을수록 오히려 불쾌감이 증가한다는 ‘불쾌한 골짜기 이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인간과 어설프게 들리는 대상을 오히려 인간과 닮지 않은 대상을 오히려 인간과 닮지 않은 대상을 더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여러 차례 반복되니 차츰 싫증이 나고 좋지 않더라는 얘기다...

여기에 인간은 공통점 보다는 차이점을 본능적으로 주목하기 때문에 이에 과민반응해 호감을 얻기 어렵고, AI 목소리가 좋게 들릴 리 없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이제 머칠 있으면 추석이다. 고향을 찾아 부모님과 형제자매 등 그리운 이들을 보게 되겠지만, 그럴 수 없었다면 정감 어린 안부 전화로 애정을 표현해 보는 게 어떨까. 정 없는 AI 목소리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Table with 4 columns: Office/Department, Name, Contact Info, and Address. Includes details for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